

\*\*  
원상화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독일 심리운동의 교육원리
	1. 독일 심리운동의 배경
	2. 독일심리운동교육 원리
	III.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독일심리운동의 적용 기반
	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운영현황
	2. 심리운동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주안점
	IV. 결론
	참고문헌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 임(FEU2019R17).

\*\*극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부교수

논문투고일 : 2020.01.27.

논문심사일 : 2020.02.17.

게재확정일 : 2020.03.01.

##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of German psychomo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ts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on, Sang-hwa · Far East University

\_\_\_\_\_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German psychomotor as a theory that could be combined with traditional arts education techniques for the arts educ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suggested the educational principle based on a domestic/foreign literature review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German psychomotor. After researching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 of arts education in schools and social arts education, this study determined the meanings, methods, and measures for applying German psychomotor to the arts educ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s results revealed three key principles for applying German psychomotor in arts educa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mposition, the teacher's positive perspective, and the creating activities that consider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erman psychomotor was initially created as a theory for integrating the body and mind, and then it started to incorporate the perspectives of music,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Furthermore, the German psychomotor theory emerged from clinical results that aim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us, the suggestion that this measure is applicable to the arts educ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extremely meaningful and can expand the range of its applicability through the convergence of two areas.

〈key words〉 german psychomotorik, arts educati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주요어〉 독일심리운동, 예술교육, 발달장애

21세기는 각 개인의 개성에 따른 개별성과 함께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개별성이 존중받고, 그러한 개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복한 삶은 단순한 ‘삶’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느낌’ 또는 ‘지각’의 차원에 속한다고 하겠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개성이 존중받는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숙과 함께 개인에게 요구되는 성장과제가 존재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숙이라는 지향점은 경쟁을 위해 스펙을 강조하던 시대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에 더 합치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며, 이는 2015년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즉,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역량을 상정하고 있다(교육부, 2015: 1-2).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중심교육 과정으로 개편하였는데,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즐기면서 배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15:34). 즉,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배움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관련법에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서이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여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2014년 5월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원인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가 발현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인간의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예술 활동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며 환경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발달해 간다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발달경향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술 활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으로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려는 기본욕구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욕구인 예술 활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며 독려되고 촉진되어 인간의 전인적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현실은 자연스러운 발달의 촉진보다는 인지적 발달을 중심에 둔 목적성을 가진 특정 학습영역 발달에만 많은 노력과 관심이 동원되어왔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환으로 교육영역에서 개인의 개성에 기반 한 잠재능력과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이 대두된 것이다. 그를 위해 '놀이적 학습 환경, 놀이적 교육방법, 체험교육' 등을 강조하게 되었고, 아울러 창의성교육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예술교육을 주목하게 되면서 다양한 교과와 융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AI 시대는 우리에게 여가시간의 증대와 함께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적은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자체가 새로운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시대의 도래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흐름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달장애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예술교육 관점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목적은 예술적 표현을 뛰어나게 한다는 등의 기능 습득 관점에서의 접근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이에 대한 표현과정에서의 다양성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예술교육 적용에 있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발달장애인의 감정 및 생각의 표현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장애인의 심리 정서적인 잠재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는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관점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예술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통한 전인적 발달, 발달단계를 고려한 놀이적 방법의 제시, 자신을 표현하고 환경과 소통하는 체험중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예술교육과 접목 가능한 이론으로 독일의 심리운동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독일의 심리운동은 1900년대 형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음악과 무용 그리고 미술이 함께 융합되는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보였는데, 심리운동도 그러한 사조와 맥을 같이한다. 국내 심리운동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과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소개되었으나, 그 시작은 음악과 무용 그리고 체육 분야와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학과 심리학이 결합하면서 탄생한 영역이다.

이에 독일 심리운동을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이적용 방안으로 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독일의 심리운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형성의 배경을 토대로 교육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예술교육과 사회예술교육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 독일 심리운동의 적용방안에 대한 의미와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의 심리운동의 교육원리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의 심리운동의 적용방안은 무엇인가?

## II / 독일 심리운동의 교육원리

독일 심리운동이 국내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대 후반이다. 차혜진, 이인경(2018: 74)은 심리운동에 대한 문헌들을 종합하여 핵심어로 “전인적 발달, 운동 교육, 신체활동, 놀이, 움직임, 동작 등”의 용어들을 제시하고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 심리운동이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심리운동 영역이 발달재활 서비스 영역에 포함되면서이다. 심리운동은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8. 27)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10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심리운동은 2005년부터 2017년 발표된 논문 수는 박사 11편, 학술연구가 44편(정창숙, 2018:165)으로 활발한 저변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아직은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교육과 독일 심리운동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학문적 영역의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독일 심리운동 원리를 예술교육에 적용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독일 심리운동이 음악, 미술, 무용과 같은 예술교육과 어떤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역사적 관점의 검토와 함께 적용원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독일 심리운동의 탄생 배경을 기반으로 그 교육원리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은 타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하겠다.

## 1. 독일 심리운동의 배경

심리운동 영역이 신체 움직임과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체움직임 중심의 체육활동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 출발은 음악교육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심리운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음악전문가인 Charlotte, P.이다. 본 용어는 1938년 ‘심리 운동적 치료’라는 기고문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de.Wikipedia). 1900년대 유럽은 심신이론을 기반으로 음악과 움직임 교육이 만나는 시기였다(박소연, 2014: 176). 그 대표적인 음악가는 Jaques-Dalcroze, E.이다. 그는 기존의 과도하게 엄격한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리듬 이에 일치된 음악교수법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고(정재은, 2005: 129), 그의 작업은 음악과 무용분야에 획기적인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00년대 역동적으로 학문간 통합이 이루어졌던 시기, 심신일원론의 입장에서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움직임은 달크로즈라는 음악가를 통해 음악, 무용, 체육 등 복합 영역이 만나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새로운 흐름을 태동시켰고, 그 흐름이 구체적인 교수법과 접목되며 독일 심리운동이라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하였다. 독일 심리운동이 음악가에 의해 시작된 용어라는 측면은 Kiphard, E.에 의해 출발

한 독일 심리운동이 음악과 무용과의 융합 성격을 가지고 발전한 이론이라는 관점을 도출하게 한다. 또한 그 출발에 있어 1900년대 심신이론에 기반 한 음악과 무용 분야의 변혁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심리운동의 예술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독일 심리운동은 1950년대 중반 키파드 Kiphard, E.에 의해 아동교육과 치료 현장에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Kiphard, E. 2001). 독일 심리운동 영역의 탄생은 자연스러운 인간발달과 건강한 인간상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심-신의 연계성 안에서 대상자의 요구중심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음악, 무용, 체육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의학 등 다양한 영역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며 형성되었다. 독일 심리운동 시스템은 어떤 선행이론이 있어서 그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발달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이 형성·활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의 실천적 요구가 이론을 선도하며 이론과 현장의 통합과 융합이 이루어진 현상이다. 결국, 심리운동은 건강한 인간상 구현을 위한 인간이해의 관점과 심신의 일원론적 관점에서 인간발달에 대한 관심을 동력으로 삼아 학문적 복합성을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독일 심리운동 이론 형성 노력의 세 가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중심접근법의 관점이다. 심리운동은 인간존중과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인본주의 관점에서 이론형성 노력이 아동중심접근법으로 나타났다. 이 관점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자기 주도적이며, 자기 결정권이 발휘되도록 활동하게 한다. 둘째, 부족한 영역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 역량기반접근법이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견해와 현상학적 관점이다.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현상학적 관점에서 심리운동의 과정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을 확립하겠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들은 분리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심리운동의 이론형성 노력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정립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심리운동이 실제 어떤 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 교육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독일심리운동교육 원리

Kiphard, E.에 의해서 창안된 독일 심리운동은 “신체경험과 신체움직임을 주요 매개로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놀이와 움직임의 체험을 통한 아동의 전인적 발

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치료 교육적 실천방안이다”(원상화, 2007:220).

독일심리운동은 신체와 심리의 연계성을 심리학과 의학과 연계하여 파악하였고, 신체움직임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교육적 방법론들이 정립되었다. 심리운동의 원리는 신체움직임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특히 발달상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능동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일 심리운동이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편적 발달과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다른 영역을 함께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예술교육과의 융합적 접근에 있어서 그 원리를 분석하는 데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

독일 심리운동은 신체적 운동과정(운동)과 심리적 정신 과정(심리)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체체험을 통해 신체, 심리, 정서, 인지의 변화와 발달을 유도하는 분야이다. 독일 심리운동은 단순히 아동이 가진 약점의 보완을 위한 활동이라는 관점보다는, 아동이 본래 가지고 있는 최선의 능력과 가능성의 인정을 통한 능력 개발이라는 강점중심 관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인간발달은 환경자극을 신체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적응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맞는 형태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선택한다. 여기서 그 과정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인간발달의 과정과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가 독일 심리운동의 첫 번째 교육 원리이다.

인간의 움직임은 감각과 함께 작용한다. 또한 운동력을 통해 감각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능적 통합과 정서발달을 이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와 환경을 연결하며 발달해 나아간다. 독일 심리운동은 이러한 나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기능하는 신체와 심리의 상호작용방안으로서, 지각, 체험, 경험 변수를 통해 움직임을 단순한 신체의 표현이 아닌 총체적인 인격의 표현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적응, 조정하고 장애로 인해 제한된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정도나 빈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발달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모델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심리와 운동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 모델

독일 심리운동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그림 1>과 같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각자극을 제공하여 감각기관의 작용을 활성화하고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활동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심리적 조절작용과도 연관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독일 심리운동의 두 번째 교육 원리는 학습자의 잠재 능력을 믿어주고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발성을 격발하고, 체험을 심화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기결정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Zimmer, R.와 Volkamer, M.의 아동심 접근 방식 관점에서 본인의 경험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핵심 원리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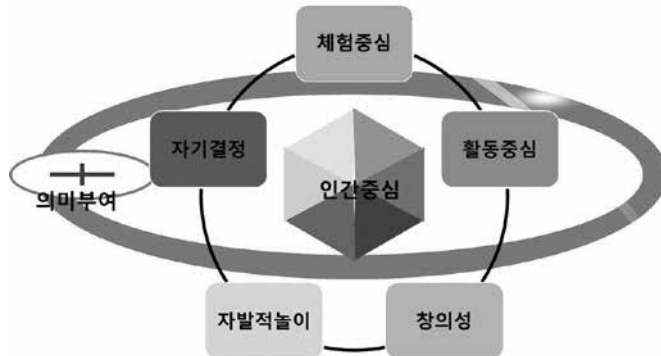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중심 심리운동의 주요관점

독일 심리운동의 교육적 원리 중 세 번째는 인간발달 단계에 따른 활동 내용 구성이다. 심리운동은 인간발달단계에 따라 ‘감각운동(Sensomotorik, 신체체험)’-‘심리운동(Psychomotorik, 물질체험)’-‘사회운동(Soziomotorik, 사회체험)’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매체가 사용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신체 내부인지와 신체 외부 인지 과정의 발달적 관점 안에서 감각과 오감, 오감을 통한 환경 체험, 다양한 상황

에서의 환경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신체체험, 물질체험, 사회체험으로 구조화 되는 발달과정(원상화, 2007: 224-225)으로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원리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위한 원리로서 두 영역이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그림 3. 발달단계에 따른 독일 심리운동의 주요 활동내용

이상에서 본 독일 심리운동의 교육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인간발달의 과정에 대한 이해라는 원리이다. 인간발달은 끊임 없는 환경 대항에 적응과정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새롭고 다양한 자극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인지하고 적응하려는 동기가 작동하도록 환경을 구성한다는 원리다. 즉,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적응하기에 적합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발달의 주체이고, 이러한 인간발달의 원리가 독일 심리운동 교육 과정에 적용된다. 둘째, 인간이 지닌 잠재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학습자의 자발성, 체험과 활동의 중심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결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인간 발달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태도와 교육방법과 관련한 원리이다. 셋째, 인간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즐겁게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독일 심리운동은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활동내용과 활용매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신체체험, 물질체험과 사회체험으로 구분한다. ‘감각운동단계의 신체체험’에서는 감각수용기를 통해 들어오는 감각을 느끼는 과정에서 전정감각계와 고유수용감각계의 발달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기획한다. 이 단계는 외부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신체내부 감각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심리운동 단계의 물질체험’은 오감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자신의 경험에 통합하는 과정으로, 현장의 실천에서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를 통해 외부환경

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운동 단계의 사회체험’은 환경과 적극 소통하며 형태를 형성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계이며 소통과정에 수반하는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독일 심리운동의 교육원리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위한 원리로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독일 심리운동이 인간의 보편적 발달에 근거한 교육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 내용 및 방법의 확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학교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심리운동의 적용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I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독일심리운동의 적용 기반

예술 활동은 신체를 중심으로 한 놀이 활동에서 출발하여 점차 매체의 활용과 소통의 표현활동으로 확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중요한 발달과정 중 하나이다. 예술 활동과정에서는 자기를 표현하고 환경 또는 대상과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표현의 끊임없는 창조과정과 결과물들이 만들어진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이루어낸 결과물에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공동 활동의 경우 경쟁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고 지지받으며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즉, 예술 활동은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전반적 영역과 연관이 되며 개인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인간발달에서 예술 활동의 중요성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모든 국민에게 예술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2005년 제정(2005.12.29. 제7774호)되었다. 본 법안의 제정 목적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제 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

하고자 했다는 점에는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실제 발달장애인 지원에서 일상생활 적응훈련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보니 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나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문화예술진흥법(법제 16595호 일부개정 2019. 11. 26.)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제 15조의 2에서 의무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장애인에게도 예술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교육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의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실천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 심리운동의 원리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운영현황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과 사회예술교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학교 예술교육의 경우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에서 진행되는 예능교과와 방과 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예술교육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의 예술관련 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예술교육의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은 영역 분류의 근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조 1항을 들 수 있다. 그 조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예술교육의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미적 감수성, 미적욕구, 이성과 감성의 조화, 잠재능력, 창의성, 표현, 전인적 교육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권희원, 변정은, 2018; 김영순, 전영은, 2011; 민경훈, 2013). 예술 활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잠재능력의 표현이고, 이 표현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예술교육은 다양한 감각자극을 자극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적 감수성을 키우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원상화, 2015:18). 기존의 교육이 인지 중심의 교과목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예술교육을 통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교육의 목적을 기반으로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의 역량 중심의 교과과정의 개편이 진행되었고 예술교과목도 그 전반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의 개별특성 수준을 강조하고 배움을 ‘즐긴다’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며 예술교육 적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예술교육과 연관된 영역으로 즐거운 생활과, 음악, 미술, 체육(표현)영역에서 목표하는 역량과 역량 내용, 목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의 예술교과 관련 역량

교과 영역	역량	역량내용	목표	내용
즐거운 생활	심미적 감성역량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서 아름다운을 느끼고, 여러 가지 자료와 매체, 도구 등을 사용하여 음악적 요소, 조형적 요소, 움직임 등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놀이 및 표현활동을 통해 감각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즐거움을 누리	학과와 나,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의적 사고 역량	주변의 대상과 현상 및 문화에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생각하고, 음악적 요소, 조형적 요소, 움직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새롭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악적 요소, 조형적 요소, 움직임 등을 활용하여 개상과 현상 및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음악	음악적 표현	자연과 사물의 현상,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함양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발달을 도모	표현, 감상, 생활화
	음악적 감수성	소리에 반응하고 자각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능력		
	음악적 소통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공감을 형성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창의융합 능력	음악분야의 지식과 소양을 타고 과와 조화롭게 연계시켜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		
미술	미적 감수성	다양한 대상화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 표현하며, 다양한 감각 능력을 발달시켜 생활 주변의 미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술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환경을 감각적으로 인식하여 소통하고,	체험, 표현, 감상

미술	시각적소통 능력	변화하는 시각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곳곳에서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기를	체험, 표현, 감상
	창의융합 능력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을 중심으로 타 교과나 일상생활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시켜 의미 있는 결과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생활 속에서 미술을 찾아가는 능력		
체육 (표현)	신체표현 능력	몸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움직임 표현의 기초를 익히고 리듬 활동, 창작 표현, 및 각 나라의 민속 표현 활동을 단계적으로 습득	표현 활동 관련 생각과 느낌 표현 방법을 습득하고, 타인의 움직임 표현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태도를 기를.	움직임표현, 민속표현

위 <표 1>의 내용을 보면 ‘즐거운 생활’ 영역의 경우 예술 활동의 통합적 성격을 나타내는 영역으로서 신체움직임을 중심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인지하는 과정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이 및 표현활동이 즐겁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적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움직임, 음악, 미술의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음악과 미술교과영역에서는 창의융합능력을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고 예술매체의 특성을 통해 학습하고 길러야할 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감수성과 소통 그리고 무용영역에서는 신체표현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교과과정 안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예술교과가 추구하는 공통점 및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개별화된 목표와 방법 설정이 중요하겠다. 결국 그 의미는 학교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무용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본요소와 매체를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현행수준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이 운영되어야 하며, 미적감수성과, 창의성과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내용은 체험, 표현, 감상과 함께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목표로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예술교육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자신의 취미 및 특기활동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 의미 있는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은 휴식이 54.7%로 가장 높았고, 취업 및 오락 활동이 48.3%, 문화예술 관람활동 35%, 여행 및 관람활동 28.1%로 조사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53-54). 지적장애

인의 경우 휴식이 52%로,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취미 및 오락 활동이 58.5%로 높았다. 이는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제한된 관심과 흥미와 활동을 보이는 특성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성인 장애인도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치상 50%가 넘는 장애인이 휴식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미성찰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의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존재 이유로는 정서적 행복과 동등한 향유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장오선, 김려원, 전병운, 2019: 59)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으로는 사회적 참여와 자존감 향상을 들어 장애인의 삶 속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와 연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접근 방식에 대한 관점에서는 소통과 공감 함께하기에 의미를 두었다(장오선 et al, 2019: 60). 이는 예술교육은 학교예술교육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예술교육으로 연장 및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한 삶의 영위와도 연계된다는 것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은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능 감의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개발해야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은 예술장르에 따른 영역구분 보다는 사회적 통합관점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기회제공과 아울러 성취감과 유능 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황금숙 외(2007:51)는 체험활동 중심모형, 이해활동 중심모형, 소통활동 중심모형을 제시하면서 예술교육의 목표를 ‘자기형성능력 및 사회적 소통능력개발,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 개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태도의 함양, 평생교육 및 직업계획 능력의 개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예술교육활동도 체험, 이해, 소통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장르중심의 구분보다는 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독일 심리운동 교육 원리의 첫 번째인 인간존중 태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개별적 특성이해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것은 보편적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독일 심리운동의 태동기는 예술 활동들을 심-신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술 활동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영역의 콜라보가 있었던 시대이다. 예술교육에서 독

일 심리운동 영역을 접목하여 각 영역의 내용과 방법의 확장가능성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초학문적 팀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정리해 보자면,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은 미술 음악 무용의 특정 장르에 대한 기능위주 교육 이전에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르를 초월한 통합적 의미의 매체들을 통해 제공된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감각경험들을 변곡점으로 삼아 자신을 표현하고 환경과 소통하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발달적 관점에서 독일 심리운동의 원리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심리운동 적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심리운동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주안점

인간발달과정에서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촉진되고 발달이 이행된다. 즉, 감각기관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과정이 발달의 기초가 된다.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언어 사용 이외의 비언어적 소통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언어적 소통의 제한을 보완하고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듬, 동작 등의 놀이적 상호작용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의 활용을 중요한 소통도구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소통방법을 배워나간다. 발달상의 어려움으로 놀이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결여된 경우 놀이적 환경 제공을 통해 내적동기를 자극하여 발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의 기초가 예술교육의 기초가 된다. 즉,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술 활동은 활용에 있어서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즐기는 경험이 예술매체에 대한 관심과 친숙함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창작활동으로 이어져서 세상과 자신과의 소통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스스로가 직접 체험해보는 직접경험의 과정과 함께 감상과 같은 간접경험도 예술 활동에 포함된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는 스스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성이 심하게 결여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편적인 발달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술 활동에 스스로 적극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방법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의 특성과 개인적 발달 특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실천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각각의 교육적 요구의 파악과 이에 맞는 교육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2018:92-9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독일 심리운동은 인간이 능동적 발달의 주체임을 믿어주고 놀이적 환경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에서도 그 원리를 접목한다면, 발달장애인의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하고, 그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 곧 예술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은 예술 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자신의 예술 활동들에 대한 유능감은 더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을 향유하게 하고 자신의 여가활동에도 연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 심리운동의 원리는 장애인들과 교육활동을 통한 경험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 심리운동의 원리적용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발달과업 기준으로 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에 대한 착안점을 제공한다. 더구나 매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목표설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므로 그 적용방안에 대한 제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예술 매체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예술 중재연구 동향분석연구’에서 미술중재는 사회성부분에, 음악중재는 의사소통영역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무용중재에서는 공간 활용, 재활, 그리고 신체적 자기 효능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원상화, 2019:186). 즉,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매체의 활용과 연계방안 마련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다. 음악, 미술, 무용의 영역 구분의 중요성보다는 각 영역의 활동원리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목표가 선정되는 예술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독일 심리운동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심리운동의 효과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은 자발적인 움직임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이었다. 그 다음 순위는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을 통한 지각 및 감각 발달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으로는 외부환경 및 상황 변화에 따른 자기조절 능력 향상이었다(유진호, 강유석, 2017:63). 이와 같은 항목을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 심리운동은 신체움직임을 중요한 매개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의 상위 항목이 신체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을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즉, 모든 발달의 시작은 신체발달에서 시작되므로 발달상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발달단계 별 활동내용과 이에 따른 매체활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독일 심리운동의 신체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적 접근연구(원상화, 2007:226)와 황금숙 외(2007:56-57)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연계성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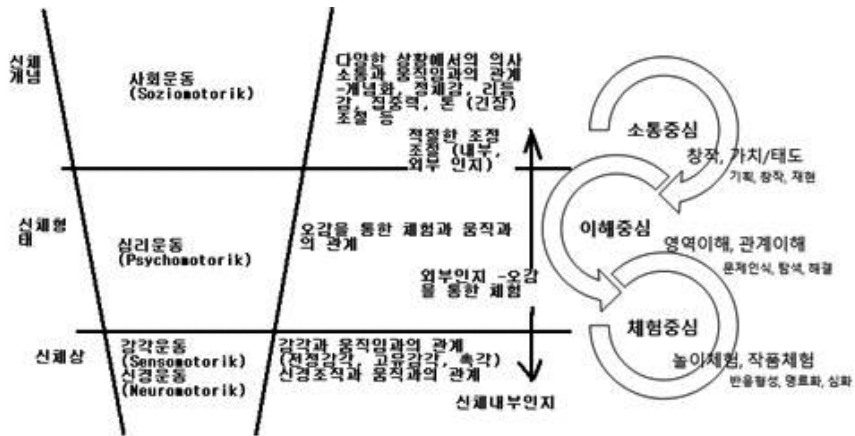


그림 4. 심리운동의 발달 단계적 교육원리와 통합형 문화예술교육모형

〈그림 4〉는 독일 심리운동의 활동내용을 인간의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감각운동의 신체체험, 심리운동의 물질체험, 사회운동의 사회체험 단계로 구성된 후 각 단계별 어떤 특성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도식화 한 것이다. 또한 황금숙 외(2007)가 제시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에서는 체험중심, 이해중심, 소통중심으로 영역을 구분 후 영역별 교육과정 구성절차를 제시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통합모형은 독일 심리운동 활동내용과 연관된 점을 볼 때 단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 내용은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독일 심리운동의 활동내용과 통합형 예술교육모형은 통합되어서 해석되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과 움직임과의 관계이다. 이는 신경학적 발달인 신체내부에서 인지하는 것으로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촉각계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감각운동과 신경운동이 해당하며, 신체체험중심 활동을 구성한다. 두 번째는 오감을 활용한 활동들이고 독일 심리운동의 물질체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해중심 활동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단계로 환경과 적극 소통하며 형태를 형성하며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이며, 사회운동 단계인 사회체험이 해당되고, 개념형성과 형태형성 및 표현의 소통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각 단

계를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전 단계를 하나의 활동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즉, 발달적 관점에서 활동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독일 심리운동의 내용은 예술교육의 교육과정 구성 시 발달장애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교육에 있어 인간의 보편적 발달적 관점에서 활동내용들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생활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별화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화된 특성 파악 및 그에 따른 매체제공의 유형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독일 심리운동을 발달장애인의 예술교육의 원리로 통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시 중증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발달과정에 있다. 즉, 예술교육에서 발달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환경구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술교육을 위해 제공된 환경의 구성 중 중요한 점은 발달장애인이 제공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구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큰 이유는 예술교육이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는 실패감이다. 그러나 독일 심리운동의 두 번째 원리처럼 인간은 누구나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발달의 잠재능력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선 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활동에서 스스로가 참여를 결정하고 활동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예술 활동 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 시각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활동내용과 방법 구성을 위한 교사의 민감성,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셋째, 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특히 매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각운동의 신체체험, 심리운동의 물질체험, 사회운동의 사회체험으로 발달이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된 활동내용이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현행수준에서 개인별 목표 수준을 반영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독일 심리운동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환경구성의 중요성, 교사의 긍정적인 관점과 교육방법,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활동내용구성의 세 가지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발달과정에 있어 변함없는 진리는 모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내적인 신경발달과정, 외부의 다양한 자극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외부환경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달해 나간다. 독일 심리운동은 심-신의 일원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신체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발달과 심리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출발한 영역이다. 초기 독일 심리운동 실천의 주 대상을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감각운동의 신체체험, 심리운동의 물질체험, 사회운동의 사회체험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대상자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놀이적 방법을 통해 신체, 음악, 리듬, 무용, 미술 등의 예술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가 미흡한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이론과 실천적 토대 확립을 위해 독일 심리운동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에게 대한 예술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수긍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예술 활동을 적용하는 의미와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예술교육 현장에서 실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 심리운동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독일 심리운동이라는 용어의 출발이 음악가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과, 심리운동 자체가 임상중심의 다양한 이론과의 융합 성격으로 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대의 음악과 무용의 혁신적 변혁이 있었고, 그에 기반한 인간이해와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독일 심리운동이 태동하였음을 고찰 하였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적용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위한 독일 심리운동의 이론과 실천적 토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심리운동의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은 끊임없는 발달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발달에 적극적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바라본다. 독일 심리운동은 인간이 능동적 발달의 주체임을 믿어주고 놀이적 환경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에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이 원리를 접목하여 발달장애인의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그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이 곧 예술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예술 활동의 시작점은 환경과 소통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이 의미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내적 상태를 공감하는 교사의 소통 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는 예술장르의 특정 기법과 기술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환경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자극하고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예술매체를 활용한 환경구성을 하고 매체사용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동기를 유발하고, 또한 그 심리적 역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구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독일 심리운동의 원리와 같이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환경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며, 예술 교육을 통해 그러한 기본 개념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독일 심리운동의 두 번째 원리로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잠재능력을 믿어 주고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두 번째 고려사항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생활연령과 정신연령의 차이,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의 불일치, 다양한 감각발달에서의 불균형 등 예술 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예술교육이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에 기여할 수 없다는 실패감이다. 이러한 실패 감의 원인은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결국은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교사의 태도이다. 예술 활동 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활동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그를 위한 교사의 심리적 민감성과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 또한 모든 활동에서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참여를 결정하고 활동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셋째, 독일 심리운동의 세 번째 원리로 발달단계에 따른 활동내용 구성이다.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발달단계에 맞는 예술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 경험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의 내용과 방법, 특히 매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각운동의 신체체험, 심리운동의 물질체험, 사회운동의 사회체험으로 발달이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활동내용이 발달장애인의 현행수

준에서 기대되는 수준이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현행수준과 함께 도달해야할 목표 그리고 경험해야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술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혜경(2012)의 ‘예술교육의 기초를 위한 보편적 예술성 발달 모델’ 연구에서 발달단계별 특징을 고려하여 예술교육 기초로서 교과목의 구성과 교수학습 지도 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 결과 독일 심리운동의 원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환경구성의 중요성, 교사의 긍정적인 관점과 교육방법,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활동내용구성의 세 가지 실천 과제가 도출되었다. 예술교육과 독일 심리운동은 각기 독립된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두 영역의 상호보완적 관점을 제시하여 예술 각각의 개별 영역 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영역을 초월하는 합목적적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독일의 심리운동과 예술교육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81호.
- \_\_\_\_\_(201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서울: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 (2018), **20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서울: 교육부.
- 권재윤, 이소미, 오윤선(2018),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한국여성체육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2(1)**, 81-100.
- 권희원, 변정은 (2018),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일상의 변화와 교육적 의미 탐구-〈문화예술교육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13(3)**, 21-48.
- 김영순, 전영은 (2011),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6(4)**, 87-110.
- 민경훈(2013),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고찰을 통한 역량 제고”, **한국예술교육학회, 예술교육연구 11(2)**, 13-34.
- 박소연(2014), “달크로즈 음악활동이 유아의 신체표현능력과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23(1)**, 175-197.
- 장오선, 김려원, 전병운(2019)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인식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메타포(Metaphor)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특수아동학회, 특수아동교육 21(4)**, 43-68.

- 정재은(2005),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리듬의 원리와 그 적용”, 한국음악교육학회, **음악교육연구 28**, 127-154.
- 정창숙(2018), “심리운동 연구 탐색(국내연구)”, 한국재활심리학회, **재활심리연구 25(1)**, 161-171.
- 차혜진, 이인경 (2018), “심리운동 중재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1)**, 71-86.
- 원상화(2007),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따른 심리운동 원리연구”,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217-240.
- \_\_\_\_\_(2015), “장애아동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통합적 예술교과 운영방안”,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5-27.
- \_\_\_\_\_(2019), “자폐스펙트럼장애 예술 중재연구 동향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1)**, 169-189.
- 유진호, 강유석 (2017),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로서의 심리운동 전문성과 효과 탐색”,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5(3)**, 59-69.
- 유혜경(2012), “예술교육의 기초를 위한 보편적 예술성 발달 모델”,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7(3)**, 21-43.
- 황금숙, 김영주, 김정선, 민경훈, 박지선, 서예원, 이정민, 장선연 (2007), **방과 후 교육을 위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 개발 연구**, 서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Carlotte, (n.d.), In Title of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Charlotte\\_Pfeffer](https://de.wikipedia.org/wiki/Charlotte_Pfeffer).
- Kiphard, E.J. (1994), *Psychomotorik in der Praxis und Theorie*, Guetersloh: Floettmann und heil-paedagogischer Bewegungserziehung.
- \_\_\_\_\_. (2001), *Motopaedagogik*, Dortmund: Verl. moderners lernen.
- Psychomotorik, (n.d.), In Title of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Psychomotorik>